



세계가 주목하는 부토 (BUTOH) 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일망

Tokyo Tokyo FESTIVAL Special 13

2021년 4~8월에

「TOKYO REAL UNDERGROUND」 개최 !

온라인 공연, 전시 프로그램 전개

도쿄도와 공익재단법인 도쿄도역사문화재단 아트카운슬도쿄가 주최하는 Tokyo Tokyo FESTIVAL Special 13의 하나로, NPO법인 댄스아카이브구상이 기획 운영하는 [도쿄 리얼 언더그라운드 TOKYO REAL UNDERGROUND]를 2021년 4월부터 8월에 걸쳐 개최한다. 본 리리스에서는 온라인 공연, 전시 프로그램의 라인업 제1탄을 발표한다.



본 기획은, 1960년대 일본에서 탄생하여 세계로 퍼진 [부토]를 테마로 하는 공연과 전시로 이루어진 댄스 페스티벌이다. 개막 프로그램으로서, 사진가 윌리엄 클라인의 사진전 [GINZA 1961 거리가 추억이 된 사진전]을 긴자의 지하 통로에서 개최한다. 또한 뉴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댄스레전드 오타케 에이코의 솔로작품을 도내 몇 곳에서 촬영한다. 추가로 특별해 야 할 프로그램으로서, 파포머 가와구치 다카오의 디렉션 하에, 우에노의 구박물관동물원역이라고 하는 1930년대에 만들어진 지하공간 등에서 장르를 횡단하며 활동하는 아티스트를 초대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가와구치 본인의 신작 [미노타우로디스코]를 포함한 10개 작품을 온라인으로 발표한다. 1964년의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급속도로 변모한 도시 안에서 탄생한 신체표현 [부토]의 매력을 2021년의 도쿄로부터 세계로 발신해 간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대응하여, 공연은 무관객으로 촬영되고, 무료로 온라인으로 발신된다. 또한 전시는 온라인이나 야외에서 개최되어, 밀실을 피해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무대예술감상에서의 새로운 제작 방식과 감상방식을 창의적으로 궁리하며 제안하여, 코로나 시대의 댄스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 기획요지

본 기획은,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단어를, 실제의 지하 공간이라는 뜻과, 일찍이 ‘앙그라’라고 불리던 예술운동이 갖는 ‘자유로운 정신’의 이중 의미로 해석해서 행하는 프로젝트다. 특히 일본에서 탄생한 예술문화 ‘부토/BUTOH’로부터 영향을 받은 다양한 작품을, 지하공간에서 상연하여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발신한다. 관객은 작품 감상을 통해, 2021년 도쿄의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을 발견하여, 새로운 감동과 만나게 될 것이다.

본 기획의 포인트는, 1960년대에 일본에서 시작하여 세계로 퍼진 신체표현 ‘부토/BUTOH’를 현재 시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에 있다. 하얀 분칠이나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 등, 부토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넘어, 자유로운 발상으로 부토의 본

질에 다가가는 것을 시험하는 실험적인 작품을 신구세대를 섞는 다채로운 아티스트와 함께 전개하여 그 매력을 전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토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보다 광범위한 관객 층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신 콘텐츠의 제작에 관해서는, 영상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에 의해 창작, 영상만의 기동성을 살린 복수의 공간에서의 녹화, 작품의 발신과 아티스트 토크를 조합하여 발신하는 등, 매력있는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코로나 시대의 댄스 페스티벌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한다. 부토가 갖는 다양성과 의외성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라인업에 주목해보자.

2. 「도쿄 리얼 언더그라운드 TOKYO REAL UNDERGROUND」 개최개요

회기 2021년4월1일 (木) ~8월15일 (日)

회장 온라인 및 도내 몇 장소

요금 무료 (온라인 프로그램은 등록제)

온라인 프로그램 등록 방법

2021년4월1일 (木) 부터 신청 개시 예정. 상세는 추후 공식 웹사이트에서 발표.

참가 아티스트

이토 키무, 오타케 에이코, 가와구치 다카오, 윌리엄 클라인, 고바야시 유키, 사카이 나오유키, 사토 패치카, 다나베 도모미, HAUS, 요시모토 다이ске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큐레토리얼 팀

아티스틱 디렉터: 가와구치 다카오 (퍼포머)

큐레이터: 이나 나오토 (영상제작·연출가·Dance and Media Japan대표)

마츠오카 다이 (부토가·LAND FES대표)

프로듀서: 미조하타 도시오 (NPO법인 댄스아카이브구상 이사장)

스태프

사무국장: 구레이마 유리카 제작보좌: 혼다 마이

홍보: 니시야마 유코 (댄스 프레스 도쿄)

테크니컬: 로시 (스나구미), 모리 노리유키 (balance,inc.DESIGN), 가와치 다카시, 고다 노리아키, 요시다 나오히로

촬영 발신: NPO법인LAND FES

편집: 하라다 다마키, 나카야마 마리 (카와이이 팩토리)

그래픽 디자인: 기타카제 부타카 (양구 소우) 웹 디자인: 마츠오카 미쿠 (양구 소우)

번역: 혼다 마이, 장 인, 이재인

기록 사진: 나카가와 다츠히코, 와다 츠바사

주최: 도쿄도, 공익재단법인 도쿄도역사문화재단 아트카운슬도쿄

기획운영: NPO법인 댄스아카이브구상

협찬: BNP파리바 그룹

협력: 오노 가즈오 부토연구소, NPO법인 부토창조자원 게이오기주쿠대학 아트 센터, FILMS PARIS NEW YORK, Dance and Media Japan, NPO법인LAND FES, 주식회사 스키 사무소, 주식회사 HAUS, 주식회사 사사키 설계 사무소, 유한회사 간타, 케이세이전철 주식회사, 수도고속도로 주식회사, 아트앤스넥운동 실행위원회, 기모노이 케노하타후지이, 공익재단법인 세종문화재단, Taiwan Contemporary Culture Lab, 소니 마케팅 주식회사, 일반재단법인 세가사미 문화예술재단

광고 협력: 댄스 프레스 도쿄

공식 웹사이트: <http://www.tokyorealunderground.net/>

Facebook: @DanceArchiveNetwork / Twitter: @dance_archive / Instagram: @dancearchivenetwork



3. 전시 프로그램

긴자의 거리를 대담하게 사용하여, 부토의 여명기를 담은 사진가 윌리엄 클라인의 작품을 전시한다. 온라인에서는 부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에 전망할 수 있는 전시를 개최한다. 거리의 풍경과 함께 작품을 볼 수 있는 리얼한 전시와, 곱곰이 감상 가능한 가상 전시, 각각의 특성을 살려 전개한다.

※본 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철저히 하여 전시합니다. 방문하신 관객들에게도 감염 대책에 대한 양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웹사이트에 기재한 내용을 일독하여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클라인 사진전 「GINZA 1961 거리가 주역이 된 사진전」

[일정] 2021년4월1일 (木) ~ 6월13일 (日)

[회장] 긴자 지하보도 (긴자역·히가시긴자역간 지하통로)

1961년에 처음 내일한 사진가 윌리엄 클라인은, 약 2개월간 도쿄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촬영하여, 64년에 사진집 [도쿄]를 발표하였다. 그 중 긴자를 담은 작품 10점을 선별하여 전시한다. 올림픽을 앞두고 혼란과 광기에 둘러싸인 도시를 세계적 사진가의 눈은 어떻게 파악했을까. 일상의 풍경에 돌연 60년전의 정경이 나타나는 도시형의 사진전이다.



William Klein, Crab Dancer ©William Klein, Tokyo 1961

도보형AR 「댄스 해프닝 투데이」

[일정] 2021년4월1일 (木) ~ 8월15일 (日)

[회장] 긴자·신바시 노상 및 온라인 (열람 방법은 추후 공식 웹사이트에서 발표)

1961년의 비가 그친 긴자, 신바시 거리 위에서, 부토의 창시자 히지카타 다츠미, 오노 가즈오, 오노 요시토를 촬영한 윌리엄 클라인의 족적을 찾아간다. 지도에 표시된 장소를 따라가, 스마트 폰을 비추어 보면, 그곳에 촬영된 일련의 사진을 볼 수 있다. 거리 그 자체를 전시 공간으로 하여, 1961년과 2021년의 풍경을 중첩시키며 350점이 넘는 사진을 슬라이드 쇼로 감상하는, 신감각의 도보형 AR작품.

※ 현지에 가지 않는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감상하실 수 있다.

AR제작 : HAUS

HAUS (타케다 히로즈미, 하야시 요스케, 이나후쿠 타카노부) | HAUS (Hirozumi Takeda, Yosuke Hayashi, Takanobu Inafuku)



Photo by naoto irai

온라인 연표 「부토 사건 로지」

[일정] 2021년4월1일 (木) ~ 8월15일 (日)

[회장] 온라인 (공식 웹사이트에서 공개)

부토는 전위예술의 선두를 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예능계를 비롯한 상업적인 세계와도 면밀히 관계하며 발전해왔다. 카바레나 CM에서 춤을 추고, 만박영화에 출연하고, 음악 방송의 백댄서를 하고, 근년에는 인기 TV드라마에도 등장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온 부토가들. 다양한 미디어나 장르와 관련된 사회에 영향을 미치던 부토의 역사를 일러스트로서 되돌아본다.

연표작성협력, 기고 : 노리코시 다카오 (작가, 야사구레 부토 평론가) 일러스트 : 이시하라 요우 (화가)



Illustrations: Yo Isehaus

4. 온라인 공연 프로그램

세계를 돌아다니며 댄스, 연극, 영상과 멀티 장르로 활약하는 인기 아티스트들의 신자와 화제작을 무관객 상연,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발신한다.

일정 2021년4월24일 (土) ~8월15일 (日) ※6월말까지, 매주 주말 신규 프로그램 공개 예정
회장 온라인

오타케 에이코 『A Body in Places』+『후쿠시마에 가다』

2014년부터 사진가, 역사가인 윌리엄 존슨과 함께 후쿠시마의 재해지를 5번 방문하며 촬영을 해 온 뉴욕 거주의 오타케 에이코. 방대한 사진을 미국 각지로 전시, 또는 영상으로 편집하여 영상과 함께 솔로 공연도 지속해 왔다. 지진에 의한 재해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에 태어나고 자라 온 도쿄의 거리와 지하 공간에 후쿠시마의 이미지를 투영하여 스스로의 신체를 중첩시켜 간다. 그 모습을 촬영한 『A Body in Places』를 프로젝트의 6년을 따라간 [후쿠시마에 가다]와 함께 발신한다.



Eiko Otsuka—A Body in Hong Kong Photo by CPAK Studio

가와구치 다카오 『오노 카즈오에 대하여』

2013년의 초연 이래 세계 38도시에서 상연하여, 2016년에는 벅시상에도 후보로 올랐던 가와구치 다카오 [오노 카즈오에 대하여]를, 8년만에 도쿄에서 재연. 전설적 부토가인 오노 카즈오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그 움직임의 기록 영상으로부터 [완전히 복사]하는 것으로 충실히 재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세계관의 대담한 재해석을 시험하는 화제작을, 영상만의 연출로 전달한다.



Takao Kawaguchi—About Kazuo Ohno Photo by Takuya Matsuda

가와구치 다카오 디렉션 기획 『부토 어느 시점』

퍼포머 가와구치 다카오의 디렉션 아래 [부토]를 비평적 시점에서 고찰해 가는 퍼포먼스 시리즈 [부토 어느 시점]을 개최. 장르를 횡단하여 활동하는 아티스트를 초대하여, 가와구치 본인의 신작 [미노타우로디스크]를 포함한 약 10여 작품을 온라인으로 발신한다. 프로그램의 상세는 다음 프레스릴리스에서 발표한다.

【참가 아티스트】

토 기무, 가와구치 다카오, 고바야시 유키, 사카이 나오유키, 사토 패치카, 다나베 도모미, 요시모토 다이스케



Photo by Tatsuhiko Nagasawa

4. 참가 아티스트 프로필

윌리엄 클라인 | William Klein

뉴욕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페르난 레제에서 회화를 배웠다. 1952년부터 사진 기술을 이용한 실험적인 표현을 모색하여 56년에 고향 뉴욕을 담은 첫 사진집을 발행한 후 세계의 대도시를 테마로 한 사진집을 차례로 출판한다. 종래의 터부를 깨트린 광각의 구도, 거친 텍스처, 강렬한 콘트라스트, 파격적인 프레이밍 등 다음 세대에 게 거대한 영향을 전달하고 있다.

HAUS (타케다 히로즈미, 하야시 요스케, 이나후쿠 타카노부) | HAUS (Hirozumi Takeda, Yosuke Hayashi, Takanobu Inafuku)

시스템 개발에서부터 디자인까지 폭넓게 다루는 팀. 최근의 주요 활동으로는, 디자인 아 전 [덧상아]의 엔지니어링, 체르핏츠티카나우지 텃페이 [지우개 산] 특설 웹사이트 디자인 개발, 사운드 퍼포먼스용 라이브 코딩 용어 「P-Code」의 설계 및 구현 등.

오타케 에이코 | Eiko Otake

1970년대의 일본에서 히지카타 타츠미와 오노 카즈오, 독일에서 마니아 슈미에르, 네덜란드에서 루카스 호핑크에게 배웠다. 1976년에 뉴욕으로 거점을 옮겨 [에이코 앤 코마]로서 독자의 신체표현을 추구. 2014년부터 시작한 솔로 활동 『A Body in Places』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았다. 호이토니 미술관, MoMA, 워커아트센터 등에서 계속하여 작품을 발표.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ADF어워드 (2004) 댄스 매거진 어워드 (2006) 를 수상, 그 외 다수.

가와구치 다카오 | Takao Kawaguchi

1996년부터 퍼포먼스 그룹 [덤 타입]에 참가. 2000년부터 솔로활동을 시작한다. 2013년에 초연한 [오노 카즈오에 대하여]는 세계 각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벤티상 파이널리스트 후보에도 올랐다. 도쿄 국제 레즈비언 & 게이 영화제의 디렉터 (1996~99), 영국 실험영화감독 데렉 자만의 저서 [쿠로마]의 번역(2003), 단편 영화 [KINGYO](에드몬드양 감독, 2009베네치아 영화제 정식 초대 작품)에의 출연 등, 그 활동은 다양하다.

부토/BUTOH란

전후 일본에서 탄생한 전위적 신체표현. 1920년대의 독일 모던댄스에 그 원류를 두며, 서양의 무용개념을 타파하는 독자의 경지를 개척했다. 히지카타 다츠미의 [금지(禁色)](1959)가 최초의 작품이다. 70년대 후반부터 '부토'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퍼져갔다. 현재는 세계각지에서 부토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고 그 이외 학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서 수업이나 교과서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NPO법인 댄스 아카이브 구상이란

NPO법인 댄스아카이브구상은 오노 가즈오·오노 요시토 아카이브의 예술 자산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횡단적인 댄스아카이브 의의의 주지와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하는 단체다. 무용 문화의 계승과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자료의 수집, 보존과 더불어 그것을 활용한 작품 제작도 기획한다. 또한 3D 기술에 의한 새로운 아카이브 수법의 개발에도 몰두하고 있다.

공식 웹사이트 : <http://www.dance-archive.net/>

「Tokyo Tokyo FESTIVAL」이란

올림픽 파럴림픽이 개최되는 도쿄를 문화의 측면으로부터 복돋우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예술 문화 도시 도쿄의 매력을 전하는 행사다.

「Tokyo Tokyo FESTIVAL Special 13」이란

참신하고 독창적인 기획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가능한 기획을 폭넓게 모집하여Tokyo Tokyo FESTIVAL의 중핵을 장식하는 사업으로서, 도쿄도 및 공익재단법인 도쿄도역사문화재단 아트카운슬도쿄가 실시하는 것이다. 국내외에서부터 응모받은 2,436건에서 선정한 13개의 기획을 「Tokyo Tokyo FESTIVAL Special13」로 총칭하여 전개되고 있다.

공식 웹사이트 : <https://ttf-koubo.jp/>

문의처 NPO법인 댄스아카이브구상 (담당: 니시야마 [西山], 구레미야 [呉宮])

E-MAIL : press@tokyorealunderground.net /

TEL : 03-3582-9273 / FAX : 03-3582-9275

